



신년사

친애하는 회원사 및 환경가족여러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구온난화, 황사 등 국제적 환경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국제회의와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이를 대신할 새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및 동북아 황사 대응을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가는 지구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그밖에 국내적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의 본격적 추진」,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강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및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지속적 추진」,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환경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등이 수립·추진되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환경재난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민과 관의 복구지원과 동참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맑은 물, 더 푸른 하늘, 더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선진 환경정책의 발굴과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이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기업체, 지자체, 국민 개개인도 환경인식과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일 때 경제·사회·환경의 통합발전을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도 우리협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과 관의 교량적 역할을 더욱 두텁게 하여 기업과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하며,



2008

謹賀新年

둘째,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초롱이의 환경세상」,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운영, 「한강생태 학습장」, 「양수리환경생태공원」운영·관리 등 자라나는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더욱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시회(ENVEX2008)”의 내실있는 운영과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를 통한 해외 마케팅 강화로 국내·외 환경산업의 발전은 물론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도 가일층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보다 나은 질적 향상과 교육대상자들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3대강 및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수질분석 업무 영역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회원사 지원사업으로 환경정책 및 기술설명회 개최, 국제환경기술전 참가부스 할인, 환경오염물질 측정료 할인, 환경정보 제공, 환경산업시찰 참가 등 회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 우리 모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협회에 보내주신 회원사 및 환경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2

환경보전협회 회장 손 경 식

